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所行發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東亞日報의 狂態亂舞

[illegible]

一

最近、約一週間에 亘한 東亞日報의 狂態亂舞는 하도 怪常多端하야 一一히 爭論할 餘裕를 가지지 못한다。그러나 賢明하신 讀者의 全部는 아닐지라도 一部에서는 그 怪態를 宿知하고계실을 幸으로 안다。要컨대 東亞日報의 千態萬象의 奇怪醜狀한 亂舞는 此를 一言으로 斷하면 革新以來、三年의 短期間에 旭日昇天의 勢로 膨脹發展해 가는 我社에 對한 嫉妬와 猜忌와 憎惡의 蓄積이 我社의 偉觀堂堂 壓人避衆의 感을 주는 新社屋으로의 移轉을 契機로하야 一時에 爆發한것이다。그러나 撮影正當한 東亞日報의 新未聞의 發狂에는 사람에 比하면 名實共히 大人의 風度를 가진 我社의 關心할바는 絶對로 없다。그러나 或一部에서 東亞日報의 我社에 對한 模擬捏造의 中傷記事에 依하야 誤解를 살까두려워하야 이에 우리는 彼의 正體를 暴露하야 我의 是를 明히 하고저하는바이다

二

我社가 아직 舊社屋에 드러잇슬때에는 彼東亞日報는 아직도 幻覺的優越感을 가지고 잇섯다。幻覺이란 事實에 업는것을 잇는듯이 보는것이다。彼의 優越感이 왜 幻覺的 優越感인고하니 첫재 資本金으로 보아도 彼는 土地家屋什物을 過大評價하야 僅僅 三十五萬圓인대 對하야 我社는 五十萬圓이다。人物、經營方針 그他에 對해서도 自辯明하기는 若干、커부하야 論치 안키니와 自辯明이 업다고한덜 賢明하신 讀者諸位는 몰라줄理 잇스랴 元來가 여러햇기에 彼의 我社에 對한 從來의 優越感은 實로 泡沫的 幻覺的 優越感以外에 아모物件도 아니엇섯다。

三

그래도 幻覺的 優越感이나마 가젓슬때에는 彼는 三冬의 배암모양으로 假眠狀態에 잇서서 꾸물꾸물하는 程度의 憎惡를 表現하더니、去十二日、我社新社屋移轉의 刺戟을받자 猝然히 꿈으로부터 깨어나서 我社의 威壓的社屋을 一町未滿의 距離에서 바라보고、비로소 恐怖心을 느끼게 되엇다。彼의 恐怖心을 全要素로한 憎惡嫉視는 極度에 達햇다。彼는 我社를 今時로 꺼꾸러칠 方法을 생각하며、材料를 探索햇다。때마치 我社新社屋移轉보다 約一週前에 我社가 醫專當局의 重大過失을 指摘한事實이 잇슴을 捕捉하야 이것을 材料로하야 我社에 對한 斷末魔的發惡을 始作하얏다。이材料는 大端히 彼에게는 有利한 材料다。何故오하면 첫재經營者가 同一人이라는 脈絡을通하야 學校當局者를 任意로 操縱할수잇고、둘재 紙面은 제紙面이니까 비록 社會民族에 對해서 떼할수업는 罪惡이라할지라도 于先、當場은 합부로 더럽힐 自由가잇고、세재、我社의 朝鮮敎育界를 爲한 厚心으로 나온 醫專當局者(單鎖히 當局者)에의 好意的 忠告를 마치 過去의 卒業生으로며 校友會、또는 現在學生會에게 까지 무슨不名譽가 되는것처럼 [illegible]할수가잇고 넷재로 식히긴 校友會를 식켜서 엇는일을 잇는듯이만드러노코、自己(東亞)는 第三者의觀察로 報道하는듯시 감꾸리것할수잇는 利點이 잇기때문이다。

四

彼東亞日報는 이 四大有利點을 體義도 廉恥도 道德도 不顧하고 함부로 利用하야我社를 迫害하는 材料를 濫造하야이것을社會에 提供하야 써 善良하신 讀者의 耳目을 眩惑하는 罪惡을 敢犯하고잇다。不信하거던今番、第一次醫專校友會의 決議文(東亞所載)의形式으로 報道된것을 보라。그決議第一項인「朝鮮日報에對한 非買同盟決議」는「朝鮮日報가 一人의 讀者도 업섯스면 조켓다」는 東亞日報의 第一希望의 表現이 아니고 무엇이며、그決議第二項인「朝鮮日報와의 一切關係의 斷絶」又는 그 附帶決議의 所謂、평론西書、堅討文及學討請願云云은 彼의 第一希望의 補强的 表現인 同時에 朝鮮日報에 對한 極度의 猜忌嫉妬의 表現이아니고무엇일가? 또한 그決議第三項의「朝鮮日報幹部를 廣告金强要者라하야 恐喝未遂罪로 告訴」云云에 至하야는 全혀 彼東亞日報及그經營者의 虛構事實이다。그러나 그러한것을 억지로 이런 決議(實事校友會의 第一次決議를 讓渡하라)를 하도록하야 이것으로써 彼가 그紙面을더럽히는 理由는 어디잇느냐하면、거기는 이러한 惡意가 잇다。첫재 이것으로써 現下衆集中에 잇는 我社의 新築祝賀紀念의 歡樂을 압솔 쓰고 妨害하라는데 잇고、둘재는 去番에 저醫專 總還生二十八名의 風潮安定를 爲하야 刑責訴願하든式의 前例에 倣하야 後日에 가서 告訴할수는 잇스나 自己의 告訴를 보아 안한다는式의 欺瞞을 敢行하라는 遠衛材料에 쓰기爲한일것이다。東亞日報의 社會에對한 罪惡的狂態亂舞에對해서 우리는 이以上을 말하고싶지 안타。나머지는 賢明하신 讀者諸位의 批判에一任할 뿐이다。

北中問題에對한 英國朝野의見解

「日本行動非難만은 過去經驗上無意味」

日本軍이積極的行動을取할것은當然 經濟的必要上山東內蒙에進出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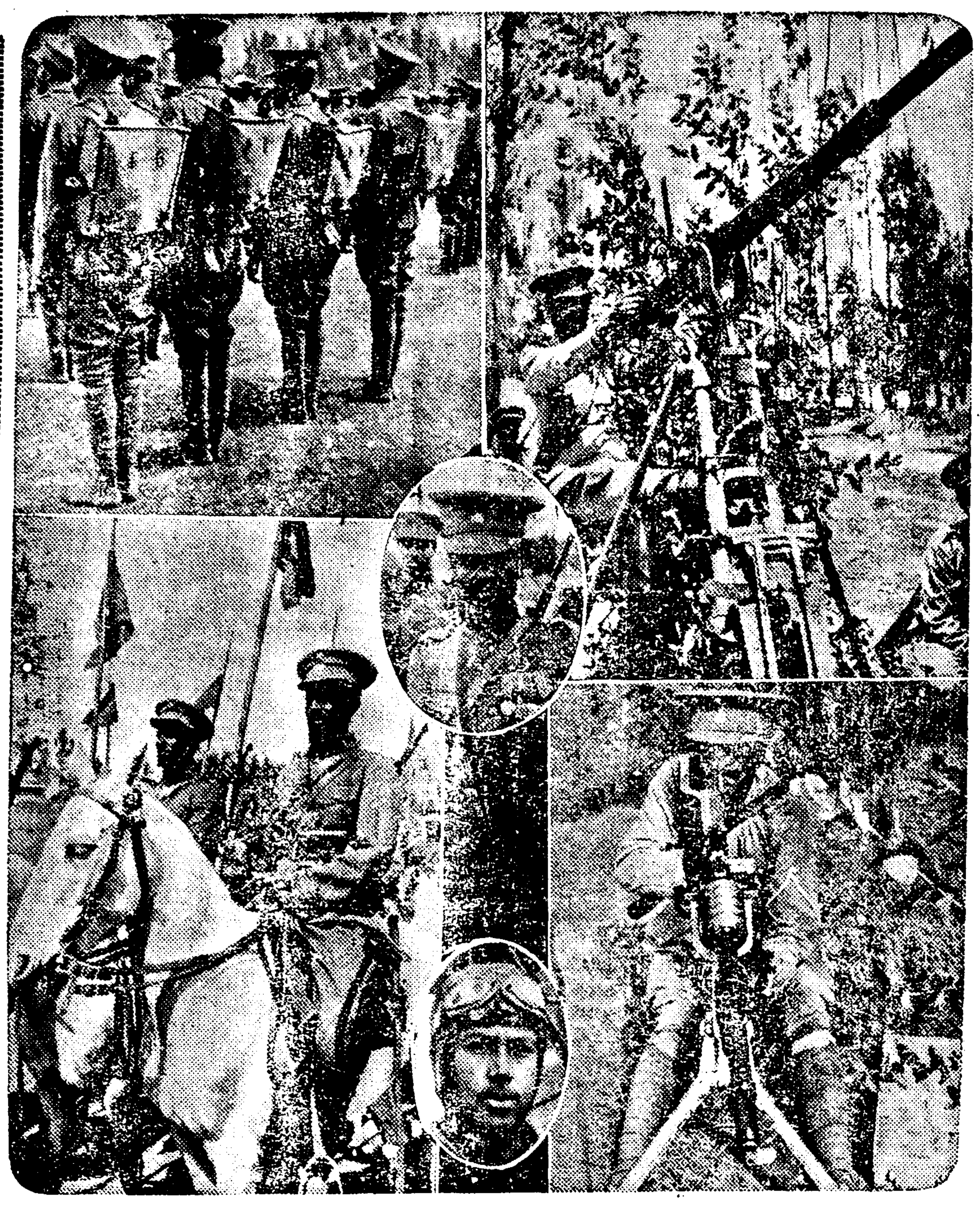
現實的具體策樹立

【倫敦十九日發聯合】北中今回의時局에關聯하야 英國朝野는日本軍今後의行動에多大한 關心을表明하고 日本軍이다시積極的行動에 出할것은 當然한問題에不過하다는 見解가一部에傳하고잇다 日本軍의 中國進出은主로 經濟上必要에 基한것이라는見地에서 棉花를目標로山東에、鹽田을目標로山西에、또蘇聯의 進出에對抗하기爲하야 內蒙古에 進出할것이아닌가고 念慮하고잇는데 特히下院議員의 一部에서는 北中情勢를重視하고 特히一日을爭하야 極東問題를討議할것을 政府에要求할意向이라고 解釋된다 單히 日本政府의 行動을非難하는것은 過去의 經驗에徵하야 無意味한것은 確實한것만큼 中國經濟界、極東의 平和確保의 現實的具體策을樹立하고십다는 意向으로 이見地에서 레이스로스經濟使節의 中國行은 重視되고잇다

今回北中問題 九國條約違反視

下院議員質問에英外相確言廻避 目下照會中이라고

【倫敦十九日發】十九日의 英國下院은 俄然 北中問題를 中心으로 討議를 行하야 數議員과 新外相호어氏와의 사이에 質問應答이잇섯는바 勞働黨議員윌리 英國은 九個國條約署名國으로서 今回의 北中問題에 善處할 義務는업는가 하는 意向에 對하야 호어外相은 現在北中에잇서서의 日本의 行動이 九個國條約의 違反이 된다고할수잇슬는지 斷言할수업다 나는 目下 外交使節을通하야 日本政府에 照會中이다 라고 答하얏다



近代化한 에디오피아의 軍勢

世界唯一의 黑人國에디오피아의 놀날만한 近代的軍備를英國新聞記者가 撮影한것이니 寫眞上左는「陸軍、下左는騎兵、上右는 高射砲隊、下右는 機關銃隊、圓內人物上은 그將校의 한사람、同下는 飛行士의 타입

察省問題正式交涉 今明間北平서開始

土肥原少將과宋氏間에

【電通北平廿日發】關東軍代表土肥原少將及天津軍張家口特務機關長 松井中佐는 二十日午後六時四十分着列車로 天津으로부터來平하야 宋哲元氏를 相對로 一兩日中에 察哈爾問題 正式交涉의第一步를 내어드되게되엇는데 一方 宋哲元氏는 二十日朝 張家口로부터 北平에 來하야 中國記者團에 對하야 來平의 目的은 今回事件으로日本側에對하야 謝意를 表하기爲한것이다 라고 述하고잇는데 宋이 交涉에 當하야 果然 日本側이 滿足할만한 措處에 出할는지 注目된다

國際勞働案 壽府에서可決

【電通東京電話】去六月四日부터 壽府에서 開催된 第十九回國際勞働總會에서 中心議題가되어잇던 一般勞働者의 勞働時間短縮에對해서는 十九日의 委員會에서 右根本條約案(一週四十時間制)이 可決되고 또 炭坑勞働時間問題에 對해서는 一部修正한後 可決되엇다는바를 二十日 內務省社會局에 在外政府代表로부터 入電이잇섯다

英獨海軍協定에關한 覺書 表公電到着

【電通東京電話】十八日의 英獨海軍協定成立에 關한 覺書發表에 關하야 在倫敦 日本大使館附武官 岡大佐로부터 二十日朝 海軍省에 如左한 公電이잇섯다 獨逸海軍은 總噸數及艦種別에잇서서 永久的으로 對英三十五퍼센트로하고 將來 某艦種에는 融通의 餘裕를가지게하고 潛水艦은 均等의 權利를獲得하엿스나 協議업시는 四十五퍼센트를 超越함을 不得함

英國政府態度에 佛政界巨頭憤慨

歐洲政治問題에對한敬遠的態度로 英佛間協調에大異狀

【電通巴里廿日發】今回의 英獨海軍協定成立은 英國이 將來에 결핏하면 佛伊를 中心으로 動하고잇는 歐洲의 政治問題를멀리하려고하고잇고 또英佛間의協調가 업서젓슬뿐아니라 重要한 國際問題는 事前에 互相商議한다는 從來의 慣習이 破壞된것을 各方面에 闡知시킨것으로 이點에對하야 佛國政界의 巨頭는 자못 憤慨困惑의 빗슬表하고잇다 그리고 英獨會談에 對한 英佛折衝에잇서서 英國外務省의 브레기參事官이 駐英佛大使 코반氏에게 對하야 故意로 協定의 가장 重要한 點을 隱蔽하고 實際의 協定內容과 相違되는 保障을 與한것에 對해서는 佛國當局은 甚히 遺憾이라고하고잇다

佛國과直接折衝次 리獨代表訪佛乎

【電通倫敦十九日發】英國側有力消息通의 報道에 依하면 英獨海軍協定締結에 成功한 리펜트롭獨代表는 右協定에 對하야가 强한 不滿을 示하고잇는佛國政府와 直接折衝을하야 英獨協定을 承認하도록 努力하기로되어 目下 駐佛大使를 通하야 會談手續의 協議를開始하고잇다

徐朱兩共軍合流 成都遂危機切迫

兩軍總兵力實로十五萬

蔣氏督戰防備에腐心

【漢口二十日發聯合】重慶來電에 依하면 四川省 成都北方에蟠居하는 徐向前의 共產軍은 今月初 西康省으로부터 四川省에侵入한 朱德、毛澤東의 共產軍을 誘導하기爲하야 一部隊를 南下시켯는데 同派遣部隊는 去十六日成都의 西方 懋功에서 合流하야 目下[illegible]番에 向하야 進行中인것이 明白하게되엇다 徐向前、朱德軍主力部隊의 合流는 數日中에 達成될것으로 보이는데 그總兵力은 實로 十五萬에 達한다 이때문에 成都는 非常한緊張을呈하고 蔣介石氏는 麾下의 各軍隊를 督戰하야 成都의防備에努力하고잇다

國府의關稅改正 八月로實施延期

【電通南京二十日發】確聞하건대 國民政府는 七月一日부터 實施豫定이던 關稅改正案에 關하야 日本의抗議 其他를 考慮한結果 그實施期日을 延期하야 八月一日頃 實施할 模樣으로 그동안에 稅率에關하해서도 다시 十分考慮할 模樣이다

王克敏氏北上

【電通南京二十日發】王克敏氏는 豫定대로 二十日午後四時半發特急으로 北上하엿다

機關說問題再燃?

【東京電話聯合】天皇機關說排擊에 關하야 政府는 美濃部博士의 司法處分만으로써 一段落을지엇다고하고잇는데 軍部로서는 政府의 措置를 不徹底하다고하야 不滿의소리가 놉하암서 海軍艦上勤務員이 上陸하엿슬때에도 여러가지로論議되어 政府의 善處를 要望할것이라는데 意見이 一致되엇고 一方陸軍部內에서는 林陸相은 渡滿에압서 大角海相과합께 岡田首相에게 善處를 要望하엿슴에도 不拘하고 그後政府의 處置는何等 볼것이엇기때문에다시 政府에徹底的善處를 要望할것이라는 意見이 有力히 行하고잇스므로 國體明徵에關한 問題는 軍部에서政府에 徹底的措處를 要望할것이아닌가 觀測된다

王克敏氏北上하면 舊軍閥策動은終焉

蔣氏態度는依然注目

【天津十九日發聯合】王克敏氏의 北上이實現되면 西南派의北中新政權을 中心으로한 舊軍閥의策動의餘地도업서서 北中政局은安全을 보게되어 親善工作의 참된第一步를 내어드되게될터인데 이境遇에 王氏는河北省主席을 스스로兼任하게될것이오 一方黃郛氏도南京에서 政務整理委員長의名을保留하고內政部長에就任하야王克敏氏의 北中에잇서서의 對日工作을援助하야 南京政府內外의 親日工作促進에 努力하게될것이라고觀測되다그러나 黃郛一派가如斯히 積極的으로陣容을再整하야 親日工作에 復歸할수잇슬는지이 最後的열쇠는 依然히 一로 蔣介石氏의 對日態度如何에달렷다

回答通達後 黃郛氏辭職

【電通上海二十日發】黃郛氏는北中의 日本要求條項實行과 何應欽氏에게 手交한 國民政府의書面回答이 日本側에 通達된後正式으로 政務整理委員長을 辭免하기로 決定하얏는데 時期는七月十日頃이될 模樣이다

察哈爾問題交涉 秦德純不就任時엔 鮑氏相對로開始

【電通天津廿日發】梅津駐屯軍司令官、土肥原特務機關長을 中心으로한 察哈爾問題對策協議의結果 土肥原少將은 一兩日中에北平에 出馬하야 折衝을 開始하기로되엇는데 責任者宋哲元氏는 이미 省主席을 罷免되엇스므로 主席代理 秦德純氏를 相對로할터인데 秦氏는 代理就任에 不應한다는 報道도잇서서 그境遇에는 軍事分會代表 鮑文樾氏를相對로할터이다 그리고 交涉後備協議는 高橋駐平武官의 손으로 一兩日中에 決定되므로 交涉을 開始하면 대번에 可決될模樣이다

人事·集會

◀安昌浩氏 本社新築落成人事次來社
◀劉相奎氏(醫專敎師)同上

夕刊後市況 二十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八四一〇 (不變)
鐘新 一一八〇〇 (不變)
日產 七五八〇 (一〇高)
東新 一三四四〇 (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五四五〇〇 先限 五六四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〇七〇 先限 六一八〇

察哈爾北中問題 全部完全히解決

적어도今後擴大念慮는업다고 國府首腦部서發表

【電通上海二十日發】國民政府首腦部는 十九日 中央政治會議閉幕後 常務委員會에 集合하야 協議한 結果人心安定을 爲하야 責任者談話의形式으로 左의發表를하엿다 察哈爾、北中問題는 今日까지에 完全히解決되어 적어도今後擴大될念慮는업다 中國側이 遂日表示한 誠意는 友邦을 滿足식키기에 足함을 信한다

特派使節로 王正廷氏渡米

【電通上海二十日發】前國民政府外交部長 王正廷氏는 近近 國民政府의 命을 稟하고 渡米하기로 決定하엿다고 確聞되다 王正廷氏는 이것을 否認하나 中國側官界에서는 거의 肯定하고 一方에서는 駐米大使說도잇슴으로 아마 特派使節로 渡米할것으로보인다

宋哲元軍麾下 近近移駐開始

【電通上海十九日發】第二張北事件突發한 宋哲元軍第百三十二師 張自忠部隊는 十八日山西와 察哈爾省境의 陽川에 移駐하라는 命令을바더 移駐를 開始하엿고 [illegible] 러이오 또 宣化의 第三十六師 張家口의 三十七師도 近近移駐的으로 熱河省境附近으로부터後退하기로되엇스므로 今後 開始되 宋哲元[illegible] 로 容易히 [illegible] 觀된다

中國側文書回答 一兩日中手交?

北平서覺書形式으로

【電通南京二十日發】中國側의北中問題에 對한·書面回答은 何應欽氏와 國民政府當局과의사이에 協議한 結果 大體成案을得하게되엇스므로 一兩日中에 北平의鮑文樾氏에게 電命하야 北平에서 高橋武官에게 手交시키기로되엇다 右回答은 條約又는 協定의 形式에 依하지안코 覺書의 形式으로서할方針이다 그리고 何應欽氏는 當分 南京에 滯在하고 北上치안흘 模樣이다

加奈陀通商使節 今秋日本訪問

【電通東京電話】日加通商關係가 險惡한이때에 加奈陀商業會議所書記長 브릭氏를指導者로 加奈陀通商使節이 今秋中에滿洲에赴[illegible]

米國上院에서 社會政策法案可決

【華盛頓十九日發聯合】米國上院은 와그너스社會政策法案을 審議表決한結果 七十六票對六票로 可決되엇는데 票決에앞서 重大한修正이 附加되엇다

北中問題와切離 局地的으로解決

察哈爾問題方針決定

【天津二十日發聯合】軍司令官官邸에서 開催된 對察哈爾問題의 最後會議는 正午後에 終了되엇는데 右會議에서 關東軍의 主旨에 伴하는 現地軍首腦部의意見이 一致된 模樣으로 聞한 바에 依하면

一、거듭한 宋哲元軍의 抗日的行動에 關하야는 强行的態度를 가지고 斷乎 此等禍根을 一掃하려고 何應欽氏相對로 交涉할터이던바 時局의 推移와 將來를考慮하야 이것을 局地的으로解決하기로하엿다

一、交涉相對는 이미 中國이宋哲元氏를 察哈爾省主席을 罷免한 關係上 秦德純氏도 加하야 宋哲元氏와 北平에서直接折衝할것

一、察哈爾問題는 河北問題와는 全然別個의 立場에서 充分愼重한 態度를 가지고 宋哲元軍의 侮日的行爲의 一掃、實行의 保障等細目에 亘한 事項은 將來를 바라 [illegible]에

一、軍의 一貫한主旨는 日中親善의 [illegible]하나 相對方의 態度如何로는 最後的行動도 不辭할것 等이다

이交涉에는 土肥原少將이 當하고 松井中佐가 補佐官으로 宋哲元氏의 準備가 되는대로 交涉을 開始하고 二十日午後三時五十五分北平에向하엿다

南滿洲朝鮮人中에서 參議一名銓考

過般新京에서 開催된 在滿朝鮮人民會聯合會는 決議事項의 一로 在滿朝鮮人中에서 中樞院參議任命을 總督府에陳情해왓는데 總督府는 最近移民計劃을 爲始하야 滿洲國關係가 密接의度를 加하고잇는이때이므로 滿洲事情에 通曉한者를 參議에任命할 必要가잇다고하고 또間島에서는前 民會長 崔允周氏를任命한 前例도잇스므로 缺員이잇는대로 南滿洲在住朝鮮人中에서 一名을銓考하게될 模樣이다

今井田政務總監 在哈諸機關訪問

【哈爾賓二十日發聯合】朝鮮人滿洲移民狀況視察을爲하야 今井田朝鮮政務總監은 田中外事課長을 帶同하고 十九日午後九時着列車로來哈하야 卽時北滿호텔에 投宿하엿는데 二十日 日滿關係機關을 訪問하고 總督府派遣에依한北滿의 朝鮮人移民에對하야詳細한報告를밧고 二十一日離哈할 豫定이다

日清生命

本社・東京丸之內
朝鮮支社 京城太平通り二丁目

卑劣·唾棄할此擧措 虛構的中傷에狂奔

公責公任을弊履가치버리고 東亞日報의斷末魔的狂態

대중의공리(公利)를 표방하고 민족의 보익(保益)을 자부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혼(魂)과 정(精)이되어야할 귀중한사회적량심을 정실에 희생하고 사욕(私慾)과 밧구기에 농사를삼어 주저치안는 저동아일보(東亞日報)는 금번 보성전문학교의 입학시험합격자 자격취소문제에대한 본보의 공명정대한 보도로 말미암아 당시의 보성전문학교 교장이든동시에 동아일보의 경영자인 김성수(金性洙)씨의 중대과실이 한번 세상에폭로하게되자 경영자이란 사적(私的)정실에 충실키위하야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최후정조를 더럽혀이를 도호(塗糊)허식(虛飾)하야 사회대중을 기만하기에 광분(狂奔)하엿슬뿐아니라 상가 민족과 사회로부터 신성한 약속아래바든 귀중한 공필(公筆)을·사정업시 굽혀서 뿌리도업는사실을 허위로 날조하야 본보의 공정한보도를 무함하기에 용대치못할 사회악을 거듭범하얏다。

이만한공죄(公罪)를 안연히 범하고도 오히려 뉘우칠바를모르는 동아일보는 이미 백일아래드려나서 머리와 발톱가름수가업게된 보성전문학교사건에잇서서는 벌서 곡비(曲庇)의자료가 마르고 허식의옷깃이 뭇질려진것을 뿐더러 이사건에대한 공정한사회적비판이 올연히 본보기사에 공명함을보고는 그비열한곡필의 방향을 다시전환하야 질(質)과 량(量)으로 비약적발전을보여 조선언론계를 석권(席捲)하고잇는 본보에대하야 추비한 음험을가지고

본사사장 일개인이라도 중상무함하겟다는 타기(唾棄)할만한의도(意圖)로 동지 음험이십일부터간이면에는 본사방(方)사장의간여된 사건이라고 표제로 허장(虛張)하고 사회적으로 호말의영향이 업슬뿐더러 개인적으로도 한등 통양(痛痒)이 업슬일개인의 쇄사(鎖事)를 오로지 그개인의중상 훼예(毁譽)만되다면 어떠한 공죄(公罪)라도 사양치안는다는 루열한단성(丹誠)을드려 침소봉대(針小棒大)적으로날조하야 본보를중상하기에 단말마적(斷末魔的)광태(狂態)를 연출하엿다。

본보로서는 저동아일보의 언어도단되는 추비한거조를 경책(警責)함에는 천하가 아다시피동사로서 언론기관의 체면을모독한 오욕(汚辱)과 신성의 비행과 언제나 사(私)를위하야 공(公)을희생하는 루루한사회악을 백일아래폭로하는동시에 사회와민족의공기(公器)로 연마(硏磨)를삼고 가진추행을 거침업시하고잇는 동사경영자들의 헤아릴수업는비행을 렬거하야 이기회에 단호한 응징을할것이로되 갈업는기사로 사회를소동케함에잇서서 못내미안한점과 추잡한지면으로 독자에게 비천(鄙賤)을 드림을 삼가 공중(公衆)키생각하고 지면정화(淨化)를 힘써마지안는 본보로서는 이것을 일체피하고 오즉금번동아일보로서 이가티공임(公任)과공책(公責)을 송두리채던저버리고본보를 중상하기에가진비열(卑劣)과 루열(陋劣)스러운리면 동기를천명(闡明)하야 독자의판단에 제공코저한다

痴人의書夢가튼 本報中傷決議를使嗾

徹頭徹尾資本奴僕이되여 忘公爲私에盡忠!

동아일보가 전향과거리 언론기관으로서의 생명가튼 사명에대하야 량심적자상을하고 경영자일개인의 대과실을 비호함에잇서서 아모리 동일한 경영자이요 동일한 기업계통(企業系統)이라고 하드라도 보성전문학교는 김성수씨 일개인의 기업기관이아니요 현학교 당국자일군(一群)의 헌회장소가 아닌바면 조선교육계에 잇서서 커다란존재로 력사와전통을가진 신성한교육의 전당(殿堂)이것을 동아일보는 언론기관의 공임(公任)을 무시하야 이력사깁흔 교육전당을 그르처 다시붓들지 못할구학(溝壑)으로 잇슬고가는 경영자와 그랑당(郎黨)인 학교당국자의실로 바로보기딱한 비교육자적태도와 경솔한 행동을자사(自社)와 공동된 경영자이란 정실을 초월하고 언론기관본래의사명을 다하야 이를교정하고 편달하야 력사깁흔 이교육전당으로하여금 유감을 천추에남기지안토록 진력함이 맛당하겟거늘 기업주(企業主)를 무조건적으로 숭경(崇敬)엄호(掩護)하는 자본노복(資本奴僕)의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여 소위보성교우회의 보도기사에 잇서서오히려 사이비교육자(似而非教育者)들의 경거망동을 선동비호하야 교육자의 언동을 점점더 타락식혀 이야말로 허물우에죄를거듭범하고잇스니 이제동아일보가본보를 중상하기우하야 그경영주를동하야 현학교당국자들을거처 사촉준동(使嗾蠢動)식힌소위교우회의 결의를보면 제일첫재로 본보의비매동맹을 한다고하엿스니 이것은 본보의비약적발전을 저해하고저하는 동아일보의 저열한음모가 그들의주문으로 소위교우회 결의를통하야 표현된것이요 둘재로 본사와관련된사업을 일체단절한다는것으로 이역시몽상으로나마 본사의고립을 책동하는 동아일보의음모이요 셋재로소위광인(狂人)섬어(譫語)가튼 광고금강요 사건이란듯지 공갈취재미수죄로 본보간부를 고발운운결의는 본보의 욱일승천(旭日昇天)의 세(勢)에우열을 늣긴동아일보가치인(痴人)의 백주몽(白晝夢)가튼결의를 사촉하야 본사사옥신축락성에대한 축하광고를 방해하자는 몽상에서 출발한것으로언론기관과 교육자가 투합(投合)하야 일기업자의 조종에 혼을빼앗기고 그의호령대로 춤을추

謹告

동아일보는 그경영자김성수씨가 보성전문학교교장으로써 범한과실을 엄폐(掩蔽)하기위하야 본보의 정당한보도를 공격하기에 가진허구(虛構)의 사실을 날조하야본보를 중상하고잇다 본보는 이조전적(挑戰的)중상에대하야 일일히변백하기는지면의 정화(淨化)를 위하야단연묵쇄(默鎖)코저하는바 동아일보의 금후광태(狂態)는 현명하고 공정한사회적판단에 맛겨 드려 가장엄숙한재단을기두리기로하는바이다

今番校友會正體는 經營者走狗의一群

善良한千餘名校友의名義를冒用하야 學校當局의使嗾으로會合

면서 언론기관의 사명을 파려먹고 교육자의체면을 함부로유린하고잇는 행동은 그들로 유감자의공분을사서 마지안는바이다

정면으로는 경영자와 학교당국자의 지휘봉(指揮棒)아래 춤을추고 측면으로는 동아일보의반주에따라 미친노래를 함부로부르고잇는 소위보성교우회는 어떠한것인가? 처음으로이교우회가성립될때에는 이학부를 나온충준들이 모교의 위성(衛城)이되여 친목을도모하자는 깨끗한의도에서 출발하엿슬것이다 그러나 전번본지가보도한 입학취소생긔사를 중심으로 망동을거듭한그들은 신성한 이학부를마치야당의 소굴가티 리용하야 기업적야심을 만족시키고저 하는경영주 김성수씨가 총참모가되고 미트로 사이비교육자(似以非教育者)=양의가 죽을쓰는레들=들이주동이되고경영주인 기업가와 공사(公私)로 정실을가진 주구(走狗)들이 야합하야 진정한의미에잇서 존귀한 보성교우회의 일흠을 감히빌려 학교당국이운동자금을 지출하야 회장까지래왕하는 자동차비까지 부담하고 또는 의문의 의미로향응(饗應)정책까지 사용하고는 천여명교우중에 사오십명(제일회 회합인원이사십명 제이회 회합인원이 십여명)을 끌러모아 이중에도대부분은 이학교 교편을잡은소위 선생들이 판을어울리고 잇섯다

천여명의 선량한교우들의 일홈을 파라 자본주의 가책바든량심을 위로해주는 이 회장의 광경이란 한마듸라도더 신랄(辛辣)하게본보를 중상하야 자본주김성수씨의 비위를 마추기에급급하엿고 한마듸라도 더실을허구(虛構)하야 학교경영자의 회심(會心)의 미소(微笑)를 사기에 분주하엿슬뿐이다 회장내의 야비한 언동이란 이루헤일수가 업슬것이나 두어가지 례만들드라도 제일회엔 자본가 김성수(金性洙)씨의 협동척 주구(走狗)김병로(金炳魯)씨는 누구보담 륙이한 재조를다하야 경영주를 위로하여가로대『우리는 폭력단을 써서 조선일보를 습격하자!』고부르지즌후 교양잇는자로는 입에담지 못할욕설로 본사간부를타매하야 만장의갈채를 바덧고 제이일의 소위 교우회에서는 지방적주구 소위교수 옥선진(玉璿珍)이 명안을 제의하되『전번의 실행위원은 너무로츄하야 말하자면 딸세가야하고 불량하지못햇슴이 유감이니 금번은실행위원 다섯사람을 더택하되 젊은사람으로 완력이 강한사람을 택하자』하야 이것을 실행하야 그경영주를 위로하엿다。그들의 자본주에대한 아유는이뿐이랴?가장한 리화시킨 형식을차려 다음과가튼 결의를하야사십칠명의 무고한 입학취소를한공로자(?)에게 최대의식(儀式)의 아첨을다하엿다

本社로暴注하는 有志讀者의投書

◇前略 普成專門學校와中央學校 事件에 對하야 六月七日以後 貴報 記事는 實로公義公憤의 發露라 할수잇스며 現下教育界에對하야 一大警鐘이라 할수잇습니다 그런데 某紙所報에 依하면今般普專校友會에서 貴報反省을要求하며 執筆者를 處罰하라는 決議를 하얏다한즉 實로言語道斷의 일이로소이다 貴報는如斯한 橫暴에對하야 一毫도屈치말고邁進하며더욱健筆을날리기를바라나이다 市內一讀者

◇東亞日報의 反動的罪狀을 赤裸裸하게 大衆의앞에드러내는것은 公正한貴報의重大한 使命이니 某條로 健鬪하시옵소서 無名

◇前略 東亞日報는 兒孩亦知는 公正新聞[illegible] 今十九日 東亞夕刊 第五二二六號 社會面 頁 「八千住民生活根據」云云이라는記事는 正히八千住民을爲한 記事인가 方應謨의對한 惑術이 나乎아려서紙面으로알려주오 無名

教育者態度? 討論後援도妨害

學生會處斷을强制干涉

경영자의비행을정당화하며도한이에대한 호외와중고자를 희방하기위하야는 수단을가리지 아니하는보전당국자는 도한보전학생대중의 의사와소망을 위곡하야 본사회예부에서 후원하기로되엇든보전학생회(普專學生會)주최의 전조선 남녀전문학교 학생토론회(全朝鮮男女專門學校學生討論會)조차 학생회로 하여금본사의후원을 취소하게하도록 강요햇다 이로써 회는변례로보전학생대중의 명일의 본사에대한 열렬한지지 때문에 본사에서후원해 오든것으로서금번에도 례에의하야 본사에서 후원하기로 확정되엇든데 학교당국자는 수업전에 학생회간부를 불러서대책하고 무리하게후원을 취소시키는 교육자로서취하지못할편협까지행하엿다

金性洙氏에게 阿諂的敬意決議

前校長 金性洙氏가 母校 今年新入生定員超過問題에 關하야 當局에 對하야 스스로 責任을 負하고 超過學生의 一人도 [illegible] 學校를 安定케함에 [illegible] 하야 深甚한 敬意를 表함

▲實行委員 韓永옥 朱官淳 黃台[illegible] 崔[illegible] 李炳[illegible] 趙正[illegible] 許[illegible] 吳一[illegible] 金[illegible]永

명예잇고 력사잇는우리의 학부안에 이러한패류(悖類)와 무이한이사가 교육자라는 「명일」을 부치고 안연히 [illegible] 하야 안젓스니 무엇은 인사로서는 못내통탄할것인가 금번에 학사회한한 보전교우회 관계자와가티 일계자본주의 주구들도 보성회 양두(羊頭)를 걸려쓰고 공정한언론을 중상하는 구육(狗肉)을 파는무리들은 전긔두가지 폐로서도 마찬가지일것이다

憤莫甚焉!

合格된後에放逐當한 宋象鉉君談

【延安】보성전문학교 당국자가 금년봄 입학합격자중 사십칠명에 대하야입학수속을 끗한안에완료하지못하엿다는 바야한 리유로모처럼 입학되엿든학생을 거리로 쫏처내여버린 가혹한 처치에 대하야는 이제는일반사회에서 모다들비난이 자자한터이다 마츰 연안(延安)읍내에 그피해자중하명인 송상현(宋象鉉)군을 십구일에 긔자가 차저가서당시경과사정을 무르니 송군은자못 울분한어조로 다음과가티이야기한다

처음에 보성전문학교 당국에서는 입학생에게 선언하기를『라듸오』로 입학되엿든사람의 성명을방송하고 또는학교게시판에 방을내여부처 발표하겟다 하엿습니다 저는『라듸오』로 입학시험에 합격되엇단말을 알고수속에 대하여는 아모말도업기에 사월십일일에 등교하여보죽 십일까지 수속을마치지못한사람은 입학자격상실로취소를 한다고 선언합되다 그래서모처럼 시험에 파스하야 채개학도되기전에 입학수속을 다하지안햇다해서 축출을당함은너무도 억울하고분함으로 마츰 문깐에서교장 김성수(金性洙)씨를 맛나서 수차애원하여보앗스나 절대로안된다 하므로 하는수업시 그학교당국의 너무도가혹한 처치를 원망하고 울화기분으로 고향으로 도라왓습니다

校友會妄動은 大脫線行爲

普專校友會員某氏談

이번 보전교우회가 본사에 대하야 취한 태도에 대하야 보전교우회 원로(元老)격으로 유명한 모씨를 그의자택에 방문한즉 씨는 매우 냉정한 태도로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도대체 이번일은 조선사회로 보거나 동아일보 또는 조선일보자체로보거나 일대 불상사라고 생각합니다 무론 사회에의하야 교우회판결만 말슴한다면 이번 보전교우회에서 취한태도는 저개인생각으로는 크게 탈선한점이 잇다고 봅니다 물론 조선일보에 게재된사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것이 우리모교의 명예에관계 되는일인이상 애교심에 넘치는 교우들로서 조선일보사에 항의를한다든가 문을하야 파시 사실무근이라하면 긔사취소또는 정정을요구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정도를넘어가서 리해관계가 다른 신문사와 직접관계를 한다든가 하려하는것은 교우회로서는 탈선이라고 안할수업습니다 더욱이 김성수씨에게 축하광고를 하려고 협박하엿다하야 이것을 보전교우회가 공갈취재미수(恐喝取財未遂)로 고소한다는것은 대단한 탈선이라고하겟습니다 귀사의 말슴에 의하면 축하광고문제도 교우회석상에 선전된말과는 자못다릅니다마는 여하간 본사사옥의 보도상식으로보와 사오백원의 축하광고를 어드려하엿다면 재산가인 김성수씨개인에게 청한것이겟지 결코 학교에 청한것은 아님니다 그러니 이것을 김씨가 보전교장이라하야 교우회에서 고소한다는것은 교우회의 탈선행위인 동시에 세상사람들로하여금 『보전교우회는 일개인을 옹호하는 기관』처럼 오해식힐 염려가잇슴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보지도 못하엿습니다마는 다음둘에가보죽 명예사람의 [illegible] 일반회원은 흑은 긔분으로 흥은긔세에 놀리워서 냉정히 비판치못하고 탈선적결의가 그대로 통과되는듯하엿습니다 어떠한 회합에서나 흥이 볼수잇는바이지마는 우리는 주대하사 그러한 리할에잇서서 좀더 냉정하고 려하는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동적으로말하면 이번싸흠은 동아대 조선싸홈이 아닌니까 신문사와 신문사싸홈에 교우회가 그직접중간에서 날뛸것이 무엇임니까 여하간 나는금번우리사회에 이런일이발생하엿다는것은 일대불상사로 생각합니다

"弑父"가伸冤되자 到處爽快聲捲起

冤罪九年든李洙倬의判決날 京城市內의街上輿論

아비를죽엿다는 무서운죄명으로 아비를죽엿다는 리수탁(李洙倬)의친후 한결이고등법원에서 내리는이날 몸멸안간 에워싸고 서로빼서가 두에는 일시호외쟁탈전이 속출 되엿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되엿다는 호외를읽고 그들은 과연예과라한드시 그러면 그 치 그가사형이될리치가잇나 과연명재판장이고 자긔가무죄나되 드시 모다이구동성으로 가튼말을한다 점차속에나 거리에나장 터에나 사람이 모힌곳에는리수 탁의무죄됨을 말하고 깁버하지 안는곳이업슴만큼 리수탁의 무 호외를 내가먼저바드려고배달부 가 요란이들리자 거리거리에는 고잇슬때에 본사호외의방울소리 형이되지안할까하야 마음을조리 과대하는사람들까지도 혹시또사 가하며 그의살어나기를 속으로 이게하엿는데 과연그는 무죄일 념려하는사람의 마음을일종의조 까두죄일까하고 그의운명여하를 구년동안이나 머리속에 일간 그의운명의긔구함을맙 함이지호렷다개엿다하야 사형입 한결되로들어주고도다시 재 을 리수탁의운명을 또다ㅅ 음 중을 새로히일으켯다 사람의운 명은 과연하늘에잇는가? 무죄 의관결이 내리는후 끄물끄물 든 일긔조차 맑게개이여 우울하든 길거리에는 갑작히명랑한 해스 빗이내려쪼이고잇섯다

"그後에오는것" 豫期되는小訴訟

中間消耗된五千石지기回收로 民事裁判이竹筍일듯

리수탁이가 그의 아버지 리건호가 죽은지 십년만에 뚜바 로 도안을 먹여죽엿다는 루명을 쓰고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서구류처분을 바더서내맘대로 손로 수용된것은 지으로부터금구년전인 소화이년오월십일일의 일이다 그가 감옥에 구금된지 불과 아삼개월에그의 아버지 유산으로 현금은 차치하고 오천여석의 추수를 밧는량의 토지를 맛꺼도 그리고 그의 전재산은 그의사 형은 ...

전옥로는 그의주위를 싸고도는 그의집 사용인이엿든 조인호(趙寅鎬) 임홍섭(任弘燮)을 비롯하야 그의백부 리정호(李正鎬)와그의적모 조건식(趙健植)등의 손에서 흐지부지 전부 업서저 버렷다 그것은 대부분이 리수탁은 알지못하는사이에 리건호의 인장 또는 리수탁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야 리정호의 명의로 이전 해버린것도 잇고 한참동안은 이제는민사법정에서 리수탁은이제는 [illegible] 점에서 오래동안 쎄세숨을일으키 송사태를일우게될것으로 형사법 이소송이야말로 의중사송으로소 차버리질것은 민사 소송싸움이다 서 리수탁이가 차차내리는것을로 리수탁이가 출옥한날부터장 사람의손을거처 넘어가버린것도 잇다 이것을법률상으로 당연히 제삼자에게매도하야 이제는여러 명의로 이전 해버린것도 잇고 한참동안안문제를 아르키게되엿다

噴飯할中傷資料 盲者撫辨의虛構

所謂祝賀廣告問題云云決議 拜金主義的自家解釋

이와가치 경영자한사람과 자본주한사람의 비위를맞처서 공양(供養)함에는 언론기관의 업숙한사명도 헌신짝가치 혈제(血祭)로 바치고 신성한 우리의학부를 교육자의 활동무대로부터 교육전당의 신성도 희롱처서 바첫다 몽매간에도『돈』밧게눈에보이지안는그들은어떠한사건의 원인이라도 그사건의중심되인물의 시비라든가 사건에관련되는기관의 여하에원인을 차저보기전에 지엽말단으로 사건의권외(圈外)에잇슬지라도『돈』관계부터눈을번혀배금종도(拜金從徒)의면목을여실히보혀주고잇섯스니 이는전번 본보가 보도한보전입학생취소문제를 공명정대히보도 (동아일보는경영자 과실이기때문에 철두철미묵살한것)한것도 자본주의구미를위하야는 언론기관과교육기관의공정과 신성을희생하고 말는그들의 눈에는역시『돈』관계로 김성수씨에게 본사사옥신축락성하광고금 모집에관련 되엿다고자가일류(自家一流)의 배금종적(拜金宗的)억단(臆斷)을 하야교유가(?)는 교편을이저버린채떠드는것이 본보의중상이 된다고 손벽을치며 떠들고 언론기관은 정조를 파려가며이것이 본보에 무함이된다고 선전에 골몰하고잇다 그러나 본보가보도한 보전합격자취소문제가 김성수씨에게본사 옥신축락성 광고금모집 문제에 관련되엿다고 전하는 보전당국자와동아일보의 그입설에는두어푼동전(銅錢)만 물려주면시이런허구사실로 중상지료를안켓다고 회오(悔悟)의 눈물을 떠러트려주저치안를『이데올로기』의소유자들인지라 이광인(狂人)의잠고대가튼 중상은귀머거리라도 속자와 안불상상임으로 독자의판단에만 밀기는바이다 겨드리기까지도 미안한바이다

延專對醫專 野球戰評

(日體初段) 李嘉烈(早大劍道初段)

◇延專이 得勝하여야될 이『겜』은 비록延專對京醫專의 決勝戰에 不過한것지마는 이『겜』의 勝負에잇서서는 延專과 京醫專의 立場이 너무나 差가잇고 相反함은 自他가 共認하지안이할수업는 特殊性을 띠우고 잇다 그 實證으로는 이날 이『겜』을 보기爲하야 京城運動場에 모혀든『펜』의 八割以上이朝鮮人이라는것이다 어째든 朝鮮人野球界에잇서 唯一한 延專의 存在는 豫想以上으로 外界에잇는『펜』의 企待가 크며 이에따라 勝負란 一時的의 結果가 언제든지 重視되야는『겜』에서나 戰勝을 하지아니하면그 影響이 크게 新界『펜』乃至關係者에게 波紋을 惹起하게되나니 延專의『겜』에對한 苦悶이 이에잇고 그重責이 또한 이에잇는것이다

◇京醫軍은 二回에 波多四番打者의 遊右單打에 對한 延專의 守備中堅 李宰得君이 前進하다가 不斷의『런넬』을하게 되야 走者의 三進을 許한後에 次打者古澤의 遊安打에 基하야 貴重한四點의 得點을 一擧에奪取함으로서 五分五分의 戰勢는 依然京醫專에 有利하게 展開되얏섯다

◇비록四點은 리ー드를 當하얏드라도 延專軍은 守備에잇서서는 死守와 攻擊에잇서서는强打를 敢行하야 六回에入하자元小者第一打者의 死球出壘를 絶好한『차ー느스』로 好打順을 利用하야 決勝의『차ー느스』를 確取하야 遂히 6ー4라는『스코ー아』로 도리혀 二點을 리ー드하야 面目을 一新할戰勢를 逆轉식히며 待望의 決勝戰 다운『겜』을 運行식히엿다 此回에 金日培君敵打手의 第一球를 三壘面上越安打로 二點을엇게한『타임리ー힛트』는 四番打者로서의 重責을 다하얏슴은 勿論이오 延專攻勢의 活力이엿슴을 이에다 시말하고싶다

◇延專은 最後一球까지 全軍이 捨身的强打를行하얏스니 그 實證으로는 敵投手의『카ー브』或은『드립』의 不確實한 投球에

對하야서도 避하지안코 强打를 試하려다가 結局은 死球까지當하게된은 그攻擊精神이엿다 烈火와가튼 이攻擊的『파잇트』『스피리트』가 잇섯슴으로 八、九兩回에 勝利의 三點을加하엿고 이에 勝神의품에 안기게되얏다

◇이날延專은 無言中에서 番衛의 自信업는『져ー지』를 甘受하며 조흔『겜』을 보여주엇고 學生다운『풀레이ー』를 하야주엇다 技術의그것보담도 意氣!이것이『필ㆍ풀레이』에 잇서서 얼마나한 重大한 結果를 준다는것도 教訓바덧슴을안다

◇이날延專의 勝利를 歡喜할때 過去에잇서血汗을 不辭하고 多年間努力한 徐相國氏의 功績을 이때를 當하야 한번더 感謝하지 안이하면인이될지니 基礎工事를 한 徐相國氏의 嚴然한 存在가 옴지기고잇슴으로 우리는 다시 吟味하고자한다

◇個人選手로는 中堅李宰得君이 攻守에 잇서 兩軍을通하야 斷然빗나고잇섯다 延專의 守神으로서 敵打者의 大飛球를無難히 處理하야 敵의乘期를 不許하얏슴은 近來의名人이다 바라건대 自重하라

中等柔道

留學生武道會主催 九月十四日에

【東京特信】東京留學生武道會에서는 지난十六日에 神田區猿樂町朝鮮YMCA에서 委員長崔在斌氏司會로 臨時總會를열고 同會의年中行事인 全朝鮮中等柔道大會에關하야討議한바 九月十四日(土)正午부터 京城鐘路YMCA體育館에서 開催하기로可決한後 執行委員으로는 崔在斌、李萬鎬、吳世源、崔相斗、張鑾根諸氏를選定하야 萬般準備에 着手하기로되엿스며 뒤니어 新入會員歡迎會를열어 和氣靄靄한가운데散會하엿는데 新入會는다음과갓다 韓炳晶(日體三段) 方光欽(日體三段) 朴孝相(中大初段)趙東祐(日體初段)

페더ー級

가부리엘對朴龍辰

가부리엘(三)군은『마닐라』극동대학(極東大學)에 재학중 안호 한맹장이다 군은 금년도 전비률빈(比律賓)학생선수권을획득하여스고 작년극동올림픽에는 비률빈대표로 등장하엿스며 재일회일비(日比)대항전에는 빤탐급으로 출전하야 청목(靑木)선수를 재삼 따운(打倒)시킨것으로 미루워보와 군의 우강타(右强打)는 가장 경계(警戒)할바이다

군은여기에 이와대전할 박용진(朴龍辰)(三二)군은 루루히 설명할필요조차업스리만치 일반팬의 주지하는 조선의 자랑이다 군은 일천구백삼십삼년부터 지금까지 전조선페더ー급의일인자이다 군이작년극동올림픽대회에 출전하엿슬때에는 제일전에『테라로사』선수를이기고『쿠나난』선수에게판정으로서패하고도라왓스나 재차원정하야서는『아가욋리이』『테라로사』『기부고』등비률빈의 세강호를 판정으로 이겨서 전동양페더ー급의 패권을 장악하야 조선권투계를 위하야 대긔염을 토한것도 아직우리의 긔억에새롭다 비률빈군은작년의 분패를 설욕코저제일의목표로 박군을지적하고 래정하니만치 군의책임이 또한중대하다 군의 전술은 무엇보담도 룰에비하고잇서 옹시로『압파ー컷』『(攪突)으로 처음고전에빠지게하는텍닉(技術)은『비률빈』된정시에도 저곳 팬들의 격찬을 바덧섯다 양군의 대전은 비상한열전을 예상케하나 대체로박군에게 승산이잇다고본다(게속)

【寫眞上은 가부리엘君 下는 朴龍辰君】

全朝鮮對全比律賓國際拳鬪戰前記

比島極東大學猛將 東洋페더ー級의覇者朴君과對峙

勝算은朴君에게? 【二】

城大先勝

對九大蹴球戰

第七回京城帝大對九州帝大對校定期蹴球戰은 二十日午後四時二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辛子任氏審判下에 九大킥어프로 開始한바 前半九分에 RW 金末奉의『숏』으로 一點을先取하고 十七分에 CF의패스를 LW 辛基源바더 꼴웃하야 또一點을加하니 九大奮然히 逆襲하야 二十一分에 城大門前에서 混戰하엿스나 無爲、三十分에 城大RW의『숏』으로 得點하야 前半엔三對零城大리ー드、後半에드러가九大總攻擊를試하야 五分에RW品川君의『숏』으로一點을挽回하엿슬뿐으로 城大의一點을 더한 五對一으로 城大의 압사이드(?) 게임으로 結局되엿다

【城大】 辛基源 LW 堤相 / 中源雨 CF 片江 / 李濟九 IL 中藤 / 金在稅 IR 後川 / 金末奉 RW 品村 / 朴禎鎭 LH 中山 / 吳世憲 CH 岡置 / 李根雨 RH 白見 / 尹衛杜 LB 立部 / 朴鎭泳 RB 田田 / 辨重參 GK 津野 【九大】

【城大】	前	後	計		【九大】	前	後	計
得點	3	2	5		得點	0	1	1
門蹴	2	8	10		門蹴	11	7	18
角蹴	5	1	6		角蹴	0	2	2
自由蹴	0	0	0		自由蹴	0	0	0

城大 5 {3…1 / 2…0} 1 九大

八幡一勝 對鮮鐵野球

5…2

八幡製鐵野球團來征第一回戰對鮮鐵의 試合은 二十日午後四時二十九分부터 京城球場에서 早速(球)石井、佑田、日置(壘)四氏審判、八幡先攻으로 開始한바結局 五對二로八幡勝(閉戰六時二十三分)

◇投捕…八幡=角地、小鶴 鮮鐵=戶上、山上

八幡	0	1	0	0	0	0	2	2	0	5
鐵道	0	0	0	0	0	2	0	0	0	2

朝鮮體育研究會定總

朝鮮體育研究會 第五回定期總會는來二十二日午後四時에 東大門外新興寺에서 열리이는데當日의決議事項은다음과갓다

◇決議事項

一、事業報告

一、新年度豫算案通過

一、任員改選

一、其他

(會費一圓持參)

府內中等校 學年別陸上

千六百餘健兒出場

京城陸聯主催의 第四回府內男子中等學校 各學年別 對抗陸上競技大會는 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할터인데 이날의 出場選手는 約千五六百名에達하는 盛況을이루고잇다

今日의運動

▲京城帝大對九州帝大 定期蹴球第二回戰은 午後四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

稅務署員被打事件은 農民蔑視가 動機

無斷侵入하야 衣籠을 뒤지다가

農民側도 三名이 重傷

【大邱】 긔보=대구세무서원(稅務署員) 세명이 주류밀조(酒類密造)를 적발코저 수색하다가 부락민 십여명에게 구타를 당한 사건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듣건대 지난 십팔일 오후 칠시경에 대구세무서원인 김홍운(金洪雲) 전신창(田新彰) 마가라(馬假羅) 외 등 사명이 주류밀조를 적발하고저 달성군공산면중대동(達城郡公山面中大洞)에서 모탁주밀조협의자집에 밀조중거를 적발코저 무단히 그집의농을 검사하여오든바 그집주인이 나와서 『당신들은 세무서원일지라도 남의집에 무단히 들어오는것은 무슨일이냐』하고서 로주고밧고말다툼이 되엿든바이 광경을본부락민 십여명은 흥분하야 자못 험악하야 망이(網)도끼(斧)등이로 전긔세무서원 김홍운 등 중상케하엿다는데 그중에도 김홍운(金洪雲)은 비사의상태에잇으나 생명에는 관계업다 하며 동면 공산면사무소에서 응급치료중이며 가해자중에도한효원(韓孝元) 한효도(韓孝道)등 삼인의 중상자가 잇다는바 가해자 십수명을 공산면 주재소에 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인바 금명내에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防害)로 대구서에이송하리라는데 일전에는지천(枝川)면에서 모이앙(苗移秧)지도원이 부락민의게 구타를 당하는등이 려한불상사가 빈발하는것은 농민의폭행이 원인이라함보다 지도원(指導員)과 세무서원등이 농민을 무지하다고 너무멸시하는데 원인이 잇다고한다

軍官校學生事件 第一回公判開廷

來卄四日新義州法院서

【新義州】 남경군관학교사건의 윤공흠(尹公欽) 김봉상(金奉江)등의 공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 공판은 래이십사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국지재판장(菊地裁判長)주심하에 제일회공판이 개정될터인데 변호사는 탁창하(卓昌河)씨가 출정하리라한다

簡易學校基地로 一千五百坪寄附

山陽洞民들이

【金海】 경남김해군록산면화전리(金海郡菉山面花田里)에서는 금년사월십일에 처음으로 간이보통학교(簡易普通學校)가 인가되엿스나 경비부족으로 교사를 신축치못하고 신입아동 칠십여명을 가교사에서 교수하여오든바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한 동면면장 윤대룡(尹大龍)씨와 동면공립보교장 로재선(盧在繕) 동면록산 김영두(金英斗)삼씨의 활동으로 전긔 록산리산양부락(菉山里山陽部落)에서는 빈민사십여호에서는 신축긔지일천오백여평을 희사하엿는데 일반은 농

麥秋! ……汶山浦所見……

南京軍官校事件 黃世淸等四名送局

三名만은 不拘束으로

【平壤】 평양헌병대에서 검거취조중이든 남경 군관학교사건 관계의 황세청(黃世淸)(二七)외 세명은 취조도일단락을 고햇슴으로 황세청만은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이십일오전에 신체구속으로 송국하엿고 남은세명은 불구속으로서 류만송국하엿다한다

執達吏事務員 不定事實綻露

【豐川】 황해도송화군 집달리(松禾執達吏)사무소사무원 리모(李某)는 풍천신룡일송화서에 인치되여 이래엄중한 취조를받는중이라는데 사건의내용은아즉 상세히 알수업스나 풍천읍에 거주하는 최모(崔某)와공모하고 집달리사무를 취급하고잇는것을 긔화로 모종의 부정행동을한것이라고전하는바 사건은 의외로확대될모양이라하며 풍천최모는 범서리모의 인치된사정을알고 종적을 감추엇다고한다

釋放運動費事件 漸次擴大形勢

【咸安】 긔보 경찰에 검속을 당하여 취조를받고잇는부인을 문지하여 서버시거주케다고 벼이의가족을 사긔하여금전을편취하엿다는사실로 방금함안경찰서에서 엄중한취조를 당하고잇는 백호찬(白昊燦)의석방운동비편취사건은 그후이사건을통해 서사법계에서 취급하지안코 서장실에서 산전서장(山田署長)이직접 취조하는점으로보아 일반은 이사건에관하야 다대한관심을가지고 사건의진전을 매우 주목하고 잇는중 지난십사일경에는 동서형사대가 함안면파수리(咸安面巴水里) 동지에 출장조사하는등 사건은점점 확대될것가티 보힌다는바 경찰의취조에따라 얼마나확대될는지 알수업다한다

府營釜의 竣工

【開城】 개성부에서는 오만여인구를 포용한개성에 일개소의수영장이 업

農繁期의 慘劇

少年『하우스컵퍼ー』가

더워征服타 溺死續出

【平壤】 지난십륙일의호우로평남농촌에서는 새로운활긔를 띄여 남녀로유를 물론하고 전야(田野)에덥혀저 잇거니와 이반면에 집을직히고잇든 아히들이더위를 참지못해서못(池)에서 강(江)에서 수영을하다가 익사(溺死)하는 비극이속출하고잇다 십팔일오후세시경 대동군재경리면천리(大同郡在京里面泉里)리 덕선(李德善)의처김보비(金寶比)(三)는 자긔의 동생김덕상(金德祥)(七)을다리고 부근못에서수영중 덕상이가 깁흔곳에빠진것을 구조하려다가 남매는참혹히도 의사하고마럿다한다

또동일 오전열시삼십분 대동군군 룡산면당상리(大同郡龍上面堂上里) 김재원(金在元)의장녀

四錢五厘地代를 二十錢으로引上

箕林里에 又復紛糾

【平壤】 지가폭등으로 정비례하는 토지열은 지주대 차지인사이에서 분규를일으켜 평양중대사회문제로서 일반의관심처가되여잇거니와 이번에는 긔림리(箕林里)칠십륙번지 가루개마즌편동리에 지주대차지인사이에서 분규가일어낫다

긔림리 칠주륙번지는 안주모부호(安州某富豪)의 토지로이지상에는 이십여호의 주민이 살고 잇는터이든바 전지주는 지료를 매평사전오리(四錢五厘)으로 이든것을 일약 이십전식 으로 올리는 동시에 불복이면 집을 허러가지고 나아가라는 청천벽력가튼요구를받게되자 즉시주민대회를 개최하고 종전의매인구전까지는 지불할수잇스나 이십전을지불하고는 생활을경영할수 업는현상이므로지주의 무리한요구를 일축하는동시에 최·까지 항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차지인조합을 조직하는일방 련합회에응원을청한바잇서 압호로의 전개는 극도로 주목을끌게하고잇다한다

十八時間暴注에 三百戶浸水騷動

十六日의降雨에安岳東倉浦一帶에는

農作物의被害도莫大

【安岳】 황해도안악군동창포(黃海安岳郡東倉浦)에는지난십륙일새벽두시경부터 나린비는 약십팔시간가량、오후팔시경까지 끈임업시 계속하야 내물이못고때마즘조수(潮水)가밀려들어 삼백여호의 동창포시내는 일대수국화하야 대호집을이루웟는바 이로인하야 륙호가도괴되엿고 안곡일대(安谷)와동창포금강리(金剛里)근방일대의전답은 전부가침수되여 압호로사오일내에 배수(排水)가되지못한다면 농작물에다대한손해는피치못하리라한다

第二公普校主催 納涼音樂大會

本社讀者優待

【全州】 전주제이공립보통학교에서는 과반일만삼천여원의 공사비로 강당을건축하고 그후피아노를 구입코저 각방면으로 활동하여오든중 저간 학부형측의 자진의연금 일천여원으로 피아노 … 이 일요일오후칠시에 동교신축강당에서 납량음악대회를 개최코저 방금제반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들어본즉 안테나』 등을 하야 『레코니』의소유자 『레너가』외 …군의출연도잇스리라는데 입반은당야의긔대가크다하며특히본보독자에게는 특별우대하야 무료입장케되리라고한다

畿湖個人庭球

三十日로延期

【水原】 긔보=수원운동구락부주최로 긔호개인정구대회를 지난십륙일에개최코자한것이 우천으로인하야 오는삼십일로연긔한바 신입긔일은이십구일까지라고 한다

全朝鮮自轉車大會

金銀壕最優勝

最終日의決勝戰에(新義州)

【新義州】 루보=신의주에서열린 제이회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는 지난십륙일부터 신의주역전광장에서개최된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의최종일인십칠일도 오전열한시부터 수천관중의환영과 우뢰가튼박수성리에 경기는개막되엇다 갈류선수의 번외경기로부터 시작하야 제일회전조선자전거경기에서볼수업는 배행경기와소아삼륜차경기등이잇서관중의흥미를돕는동시 사류결승、삼류、이류 일류결승과 며류결승、로장결승등으로 꼿갓든데 갈류선수들의 성대한 수상식과 부회장리재규(李載奎)씨의 간단한 폐회사가잇슨후 오후칠시반에 경기의막을닷첫는바 갈류선수들의 긔록을보면 다음과갓다

◇一流決勝(五十週) 一着 金銀壕(新義州) 二着 許一在(定州) 三着 金平洵(沙里院)

◇二流決勝(四十週) 一着 許一在(定州) 二着 鄭永燁(新義州) 三着 金昌玉(黃州)

◇三流決勝(三十週) 一着 金昌玉(黃州) 二着 白一南(平壤) 三着 李得奎(平壤)

◇四流決勝(十五週) 一着 李應燮(新義州) 二着 張基礎(新義州) 三着 金重甲(新義州)

◇老將決勝 一着 嚴福童(京城) 二着 魯萬福(新義州) 三着 崔龍孫(新義州)

◇女女流決勝 一着 文仙女(安東縣) 二着 金永月(安東縣) 三着 金晶朱(安東縣)

邱南鐵道敷設問題 十年만에再登場

金三鐵道의敷設可能性을듯고

南原側에서再起提唱

【大邱】 대구일대의 산업교통(産業交通)의 발전책으로서 생명선(生命線)이나 다름업는 구남철도(邱南鐵道)부설에관한문제는 십년을두고 현안이되여 대구남원(南原)두지방이중심이되야 고령(高靈)합천(陝川)거창(居昌)함양(咸陽)등의 후원을어더 구남철도긔성회(邱南鐵道期成會)를 조직하고 동경(東京)까지진정위원을 파견하야 일시긔세를올리고 잇든바 불행이도 긴축시대의여파로 갈하를당하야 동긔성회는 원긔를상실하고 오든바지난십칠일에 남원긔성회측에서는 서경길(徐慶吉)외칠인이 대구에와서 십팔일밤일시경에 대구긔성회측과 당지공회당에 연석회를 원만히 협의하엿는데 대구측도 열성적으로 합류한다고하엿는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김천(金泉) 삼천포(三千浦)간의 김삼철도가모방면에서 실현성이 풍부함을 남원측에서 알고대구와 합류하야 김삼철도보다도구남을 압서실현케하자는것으로 대구측에서는 재차기세를올리게되엿다한다

今日 廿一日

第一日 午後八時半부터 新陽里崇實體育館에서

全朝鮮씨름大會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別冊附錄 夏の新手藝と簡單服

大流行の手藝品四十種とスマートな簡單服二十七種の作り方

일일히 그림과 친절한설명으로 누구나 다됨、 시가數圓、十數圓式하는것이 재료비만으로 훌융이되는 취미와실용경제 세가지가 다구비한부록으로 대평판

夏の大奮發!! 大人氣の豪華を誇る四大奉仕 漫畫繪本 二大別冊附錄に 高吉一百圓 賞品 黑兵衛 誰方にも出來る大懸賞 大評判!!

婦人俱樂部 七月號

新郎新婦の冒され易い新婚病の豫防と手當法

內外の資本で五百円女の商賣に成功した実際談

貯金の出來る小學教師の模範的家計

子宮內膜炎を自宅で根治した実例

お勝手口から見た奥樣を語る御用聞ばかりの座談會

別冊附錄 夏の小兒病醫典 醫學博士 竹內薰兵

어머님들의 꼭 알어둘 하절 소아병일절지식

생각만하여도 소름끼치는병마에서 어여쁜자녀를 직히시라。 어떠케하면 완전히 예방할수 잇슬가、발병하면 어떠케 응급치료를할가가정에서 가장급한 간호는 무엇인가、어떠한 섭생법을하면 빨리 체력회복이될가하는등 소아과권위의 竹內先生이 잘알기쉽게발표한대보전

●夏の薄物仕立方秘訣……淺生金藏

●手近な野菜果物利用美顔法

●一流美容師發表 夏の洋髮大畫報

悲しい濡衣に惱む人妻の告白

暑中休暇を有効に過させた経験

子を持つ親には暑中休暇も又惱みの一つです。こんな具合にやりさへすれば全く理想的に教育出來ます

こんな男は御用心 警視廳第一搜查係長 中村勇

武者山母子愛涙話 花村哲夫

吉屋信子先生傑作 女の友情 問題の小說愈々白熱

菊池寬先生名作 結婚の條件 近代の女性は斯く戀と鬪ふ

全女性の人氣を独占した大評判の問題小說!! 新月抄 久米正雄

▲歷史小說 千姬……三上於菟吉

▲戀愛小說 喘ぐ白鳥……加藤武雄

▲時代小說 夢の浮橋……大佛次郎

▲諧謔小說 心のアンテナ……佐々木邦

家庭で出來る夏の飲物とお菓子 十三種

特價六十錢 送料九錢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

自給肥二次計畫 卅五億貫目標
明年度以降十個年計畫으로 大體一次方針踏襲

自給肥增産第一次計畫은 旣報한바와가티 今年度로서 完了되는데 農産課에서는 繼續하야 二次計畫을 明年度以降十個年計畫으로 實行하려고 五月以來準備調査한다는데 左와如한 目標로써 實行하기로되엇다한다

即現在의施肥狀況으로서는 依然히 掠奪農法임으로 朝鮮內農耕地의 最少限度의 地力을 維持하기爲하야 아직三、四十億貫의 施肥가 必要하므로 第二次計畫은 堆肥、綠肥其他合計增産三十五億貫增産을 目標로하고 堆肥增産二十五億貫、綠肥四億貫其他六億貫의 豫定으로 大體의 增産獎勵方針은 一次計畫을 踏襲하야 指導里의 設置指導獎勵를 하는바 第一次計畫에잇서 不振을 示한 綠肥에잇서서는 種子料交付等新施設을 講究하야 增産을 策하리라한다

肥料配合所 七個所新設
各道肥料關係官을招致 二十日具體案協議

總督府에서 計畫中인新設肥料配給所는 徐山 仁川 新義州 旣設配合工場以外에 鎭南浦 龍塘浦 群山 木浦 麗水 長項의七個所로決定하고 農林局에서는 明廿日各道肥料關係者를 招致하야 그에對한經費及 具體的實行方法에對하야協議會를開催하리라한다

自作農創定數 昨年二千五百戶

自作農創定計畫은 昭和七年度부터 十個年計畫으로 戶數二萬、一萬町步의 自作農創設을 目標로 年間二萬円의 國費補助로써 施行中인데 昭和九年度計畫은 九年十二月에 土地購入을 終了하야 各道가 모다 이즉創設을 完了하엿스나 低金利의 普及은 同計畫에 九年度로부터 다음과가튼好影響을주어서 이結果로 旣定計畫에 依하면 年間二千戶一千町步의 創設豫定이 九年度부터 二千五百戶一千二百五十町步의 增設이 可能케되야 施行하고잇다한다

이것은 土地購入資金으로서 簡保資金을 充當하고잇섯는데 昨年來로 低利六分이 五分四厘로 低下하엿슴으로 總督府로부터의利子補助額三分이 二分四厘임으로 可成此處에 六厘의餘力을 가지고 잇는까닭에 이것을 新規增設에 … 渦中에잇슨만치 耕地價格과 가름을 이 甚히 低廉함으로 初年及二年度에 設定의 自作農은 有卦에 入하고 잇다고한다

明年加里輸入 十五萬噸?

【東京電話】獨逸、佛蘭西의 加里를 取扱하고잇던 大日本加里社에서는 今回蘇聯、西班牙가 國際加里協定에 加盟하얏슴으로 이 販賣權을 獲得코저 交涉中이던바

平南飼豚大增殖
十七萬의農家를 全部有畜農家로

【平壤】平南道에서는 現在道內의 畜牛十一萬頭를十六萬五千頭로 五割增殖을 하고저郡守會議에 道의方針을 指示한바잇섯는데 이번에는 豚의大量增殖計畫을세우고 이方面에 盡力키로되엿다 計畫의內容은 平南의農家十七萬戶中에서 十一萬七千戶는 畜牛飼養農家로하고 남은六萬戶는 飼豚農家로 만들計畫인바 이것이 實現된다면 現在의十萬에서 約五萬餘頭가 增加할터이라한다

肥料配合案에 議論이沸騰
今日朝農臨時總會

朝鮮農會에서는 肥料配合事業과 配合肥料共同購入斡旋開始에 伴한 臨時總會를 二十日午前九時부터 京城支部에서 總督府로부터 古庄山澤兩課係課長과 尾崎千田石塚二代和田의 諸氏(以上全部顧問)並矢鍋顧問이 臨席하고 朝鮮農會議員九名 各道農會議員約三十名合計 四十四餘名이 出席하야 松井副會長議長下에 開催하고 新規事業開始에 伴한 規約變更豫算編成其他의 件을 附議에 드러갓는데 肥料配合事業開始에 關하야 利害가 相反하야 議論이 沸騰 意見의 一致를 보지못하고 午前은 마치고 午後再協議하기로되엿다

亞細亞石油貯藏油 二百萬깨론引上

【釜山十九日發驛舍】當地에잇는 亞細亞石油會社에서는 同地貯藏石油約二百萬깨론의 積出計畫은 近近 第二回船의 入港을 豫定이다 同石油會社는 今次의 引上은 全滿海航石油會社에 對하야 相當히 影響이 잇스리라하야 그 推移는 重大視되고잇다

黃金朝鮮의 眞面貌

九年度金産額 四千萬圓超過
盜堀、密輸를計上한다면 七千餘萬圓에到達

昭和九年度産金額에 對하야서는 目下鑛山課에서 各鑛山을 督勵하야 産金額申請을 集計中인바 依然 各金山으로부터의 申請이 綜合되지 안코 單價도 區區함으로 이를 整理統一할 必要上 九年度産金高의 集計는 今月上旬으로 밀려잇는데 鑛山課의 槪算에 依하면 前年의 三千一百三十萬圓에 比하야 約三割增의 四千萬圓을 突破하야 四千九十萬圓으로 豫想되고잇다 盜掘密輸그他가 依然히 不明하야 當局에서는 朝鮮內의 實産金額은 約七千五百萬圓以上으로 推定하고 잇다

飽和狀態에이른 燒酒釀造業

燒酎釀造에對한 總督府財務局當局談을드르면 燒酎釀造는 五十萬石을 目標로 進行하여왓는데 이미 四十七萬石에 達하야 이以上의 增産은 더욱 愼重히 할터이라고한다 一時悲境에잇든 在來燒酎業者도 不況을 脫하여왓슴으로 이生産統制의 效果를 破壞치 안토록 財務局은 細心의 注意를 拂하고잇다 燒酎와 濁酒와는 酒稅中의 兩大宗으로서 前者는 約七百五十萬圓 後者는 五百餘萬圓의 稅額에 達하고잇스므로 大重視하고잇다 그우에 燒酒와 濁酒와는 關係가 密接함으로 燒酒가 投賣케되면 濁酒에 惡影響을주어 兩者의 納稅者를 모다 同時에 疲弊케함으로 이點을 警戒하고잇는데 爲先燒酒의 市中賣五十錢內外는 適價라고한다

中央金庫案 大藏當局은否認
商工當局政治的折衝

【東京電話聯合】商工省은 中小商工業對策으로 商工中央金庫創設案에 伴한 豫算을 大藏省에 要求하얏슴에도 不拘하고 大藏省은 主로財政上의 形便을 理由로 이를 承認치 안음으로 中央金庫案은 全然停頓의 狀態에 잇는바 町田商相은 去六十七議會에서 昭和十一年度豫算에는 職을 걸고 이 實現을 圖할터를 言明한 關係上 萬難을 排하고 大藏省의 承認을 求할 必要가 잇서 近近 高橋藏相과 會見하야 政治的折衝을 開始하기로되엿다 그런데 大藏當局에서는 今年度豫算編成期에 잇서서 商工當局이 提議한 具體案에 對하야서는 關係各局課에서 愼重審議한 結果 中小商工業者를 爲하야 特히 國費를 伴하는 施設並機關의 運用에 依하야 充分。그 對策을 考究할수잇다는 結論에 達하야 드듸어 商工省案을 否認한것인데 最近에 잇서서도 大藏

英吉利裁縫機 六千臺輸入
十九日仁川入港英船으로

【仁川】現在國産品을 極力獎勵하는中이나 外國物貨의 輸入의 減少는보지못하고오즉 從前대로 輸入되는 形便이라는바 지난十九日仁川에入港한 英國汽船 데다부아丸으로 英國製裁縫機六千臺(三三九噸)約 百二十萬圓에 達한다는바 以後로는 日本內地産裁縫機도 極力改良하야 外國品을 凌駕케할豫定이라한다

貿易局顧問 參與會議

【東京電話】商工省에서는 十九日午後二時 商相官邸에서 貿易局顧問參與會議를 開催하고 米國의 日本品防遏問題其他에 對하야 여러가지 意見交換을 行하고 同四時 散會하엿다 그리고 朝鮮經由 統制問題에 對해서는 電球、綿織物、琺瑯鐵器、고무靴等 特히 朝鮮經由로 輸出되고잇는 結果 日本內地의 統制를 紊亂케한다고 商工省에서 外務省과 協議中이던바 요즘 日本內地同樣으로 輸出檢査規定을 制定하야 日本內地와 協力하야 統制를 行하기로 되엇다는 旨를 拓務省으로부터 報告하엿다

優良漁船의 十年度補助決定

總督府今年度 優良漁船建造補助費四萬圓의 割當은 十七日決定되엇다 昨年의 六十隻에 對하야 今年은 機船二十隻帆船六十二隻計八十二隻에對하야 補助키로되엿다 其割當은 左와如하다

江原	機二	帆六	三、六三〇
慶北	機五	帆二	四、九〇〇
慶南	機三	帆八	五、五一〇
全南	機二	帆四	三、六六〇
全北	機二	帆三	二、一五〇
忠南	機一	帆四	二、七五〇
咸北	機二	帆一	二、六四〇
咸南	機一	帆三	二、八二〇圓

鎭海의稚鯉 約三百萬匹
廿六日부터分配開始

總督府水産試驗場鎭海養魚場으로부터 例年全朝鮮各地에 分配하는鯉稚魚는 今年은特히範圍를 擴張하야 滿洲國奉天、朝陽鎭方面에까지及하게되어 來二十六日부터 一個月間에亘하야 總計一千四百九十八桶 約二百九十九萬六千匹의 輸送을 開始하기로되엇다

石島原鹽 仁川港初輸入

【仁川】仁川稅關調査에 依하면 지난十七日 中國船日永丸으로 石島原鹽三、一〇〇噸四萬千八十五圓어치가 輸入되엿다는데 石島原鹽은 初輸入으로 以後繼續輸入될形便이라한다

水産品의 對中輸出
前年보다一割三分增

朝鮮水産物의 對中輸出은 年年順調로 發展되는데 特히 昨年은 더욱活況을 呈하야 出荷總額三萬四千八百九十六個、百九十三萬六千七十三圓에 達하야 前年에 比하면 個數에잇서 一割三分의 增加이다 그中輸出品의 重要한것을들면 鮮魚類가 第一位로 其外 海參、鮑漁業等全部가 好況이라한다

五月元山漁組水揚 八萬五千餘圓

【元山】今年五月에들어서는 昨年에 比하야 比較的大漁가 繼續되는 고등어、정어리等의 水揚高를 보아 元山漁業組合水揚高는 前年同期에 比하야 八千四十八圓三十二錢의 增加를 示하고잇다는데 五月中總水揚高는 八萬五千二百四十七圓七十九錢이라고한다

二大괴쉬밀工場 清津에新設計畫
精銳機를使用優良品生産 小工場에는影響不少

朝鮮에잇서 새로이러난工業이나 現在工場數는 咸南三、咸北十八、慶南一、江原一計二十三工場으로 生産高도相當한數에 達하야 米、獨、和其他歐米各地에 輸出되고잇스나 그品質이 不良하야 取引上困難이 莫甚하다는데 그主因은 機械設備가 不充分한것과 조흔原料를使用하지 안는다는點에 잇다는바 이번咸北清津에 某財閥에 依하야 二大工場이 新設된다고한다 竣工後는 첫재自動的機械設備에 依하야 新鮮한優良原料를 使用하는것과 물재粉碎搾油를 取하야 製造하는 兩方面을 取하리라고하는데 이에對한 一般의 觀測을 들으면 旣設小工場에 壓迫이 적지안흐리라고한다

慶南水利組合 改良工事不遠着工
＝그計畫의內容＝

【釜山】慶尙南道內十六水利組合의 災害復舊工事는 大槪豫定대로 七月中旬까지 全部竣工하기로되엿다는데 道當局에서는總督府의 水利組合整理案에 基하야 今年度부터 改良工事를 實施하기로 決定하고 머지안어서 工事設計에 着手하야 十一日頃부터 着手할豫定이라한다 그리고 該改良工事費는 中南一萬五百圓 梁山六千圓外에 昭和十一年度實施의 咸安十六萬五千圓 東面十九萬圓 梁山八千圓 鐵南七萬一千圓 昆明二萬八千圓이바 全部一個年을 압단기어 今年度에 着手할豫定이라하며 또十二年度實施의 大山十三萬七千圓 咸安十六萬五千圓 下南六萬八千圓 鐵南七萬一千圓의 改良工事도 一個年을 압단기어 十一年度에 竣工할 計劃이라한다

檢査制와共販으로 正租出廻가減少
仁川客主組合費減少理由

【仁川】二百餘組合員을 擁護하는 仁川客主組合에서는 지난十六日午後七時부터 同組合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昨年度決算報告와 十年度豫算査定이 잇슨後 委員改選을 하엿다는데 그中에서 注目되는것은 組合費가 昨年度에 比하야 六百五十圓이 減少된것으로 그理由는 今年四月부터 實施된 正租檢査制度와 各農村의 共販制度로 正租出廻가 延白것이 五萬石 其他五萬石合十萬石의 減少를 보게되엇다는 까닭이라는데 이것은 一段 客主業者의 沒落前兆라하야 만흔 恐怖를 늣긴다고한다

平南移秧活潑 廿日頃全部終了

【平壤】平安南道內의 移秧狀況을 보면 今月初旬移秧이 開始되엿섯스나 水畓의 不足으로 困難을 感하고잇서 進捗이 늣저지든바 十日以來의 降雨는 最高百三十耗로 平均八十耗의 豪雨이어서 移秧은 順調로되어 十九日現在七割八分가량 進行되어 二十日까지는 完全히 終了되리라한다

五個年計畫으로 叺繭共販場增設
農政課에서立案中

總督府農政課에서는 叺繭共販場所를 明年度부터 五個年計畫으로 二百七個所를 增設할豫定인데 明年度에 六十七、昭和十二年度에 五十七、十三年度에 三十五、十四年度二十三、十五年度에 二十五個所를 新設할計畫으로 立案中이라는데 明年度의 增設數를 들면 다음과 갓다

京畿四 忠北二 忠南一 全北一 全南六 慶北一九 慶南五 江原三 黃海三 平南一 平北一 咸南一 咸北一 計四七

春繭共販開始

▲禮山 【禮山】禮山郡農會에서는 지난十一日부터 二十七日까지 春繭共販을 施行하는데 그價格은 左와如하다

特上	三、〇〇圓
特等	二、六三
一等	二、四二
二等	二、二一
三等	一、九八
四等	一、七六
等外	一、三二

▲奉化 【奉化】慶北奉化郡農會에서는例年과如히 去十日부터 春蠶共同販賣를 開始하엿다는데 今年은 蠶種配付數가 昨年보다 增加되엿섯으나 桑葉의 發芽盛期에 갑작이 日氣가 寒冷하여 奧地인 太白山麓一帶와 春陽面 小川面 才山面等地는 暴風寒霜과 여러날의 서리로 因하여 己發되엿든 桑葉은 全部凍死枯痿되여버려 不得已 配付하엿든 蠶種을 當局에서는 掃立中止를 斷行식히는 등 이에 잇서 增加될것이 도리혀 減收를 보게되엿는데 今年은 昨年의 六千餘枚配付에 比하여 五百餘枚減數인 五千四百八枚가 配付되엿스며 繭價도 極히 低廉한關係로 販賣開始當日은 매우 閑散한 氣分이 濃厚하엿다는데 販賣處는 乃城、春陽、才山三市場으로 該販賣場所와 時日期間及繭價는 如左하다고한다

乃城(奉化乾繭場) 自六月十日로 一個月間

春陽(春陽乾繭場) 自六月二十日로二十日間

才山(才山乾繭場) 自六月十五日로二十日間

▲特等二、五三 ▲一等二、三一 ▲二等二、〇九 ▲三等一、八七 ▲四等一、六五 等外同功繭上一、二五 下 八四

▲鴻山 【鴻山】扶餘農會에서 下와如히 春繭共販日을 指定하얏다고한다

鴻山 自六月十四日至同月末日

扶餘 自六月十五日至同月末日

▲安岳 【安岳】安岳郡春蠶은 今年 成績이 比較的 良好하다는데 그價格도 例年보다 나으리라고 豫測되는바 來二十二日부터 安岳郡農會에서 共販을 開始하리라한다

質疑

質疑는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瞭하게

【問】井戶를 새로 掘鑿하고 세멘트를 塀築한지 二個月동안 四五次나 물을 퍼버렷스나 물이 비누물과가티 밋그럽고 기름갓흔것이 떠서 飮用치아니하고잇사온대 그대로 飮料水로 使用하여도 衛生上無害하올니까 有害하다면 如何한 方法으로 除去하올는지 下敎하여주시옵소서 (一讀者)

【答】原水質이 如何한지요 세멘트使用이 原因이라면 衛生上無害하오나 約半年間 飮用은 水質이 세멘트中의 石灰分溶解로 因하야 若干變함니다 除去方法은 厭가지는수밧게 업지요

昨年水産物消費 三千四百餘萬키로
五百七十九萬餘圓

總督府調査＝九年中의朝鮮內水産物消費量은 三四、九七八、一三六키로 價額五、七九四、三六七圓으로 朝鮮內의 水産物의 主要한消費地는 如左하다

(單位數量瓩、價額圓)

	數量	價額
京城	三、七二二、六〇二	一、三六七、四六五
平壤	六九〇、八八一	二八〇、四八六
大邱	四六一、三三六	一六四、〇八五
大田鳥致院	三五七、五五九	九八、七二〇
新義州	三二七、三二四	一〇一、五五五
全州裡里	三三五、一〇六	八六、五五二
清州	二九〇、七七三	一一、五三三
光州	三〇、四六八	六、〇〇〇

鑛山監督課未現時는 要處에分析所를設置

過般來各地商工會議所에서는 總督府에 對하야 鑛山監督課의 設置를 要望한바잇서 一般의 注目을 끌든터인데 總督府殖産局에서도 그設置의 必要를 感하야 벌서부터 豫算을 編成하는 模樣인바 이것이 今年과가티 實現되지 못하는 時는 鑛山監督課設置의 過渡的施設로 重要地帶에 分析所를 設置하는 同時에 各道에 鑛山專門技術者를 配置할터이라한다

移住朝鮮人爲해 內蒙土地買收

【新京電話商通】朝鮮總督府新京

天津粟輸入 二千四百四十袋
＝十七日仁川港에＝

【仁川】去十七日中國船日京丸으로 天津粟二四四〇袋(一三三二噸)價格은 四萬八千八百圓에 達하야 今年度最高輸入額이라고한다

土壤分析機關을 忠北平北에新設
各道農試化學室도擴充 農産課에서計畫進行

累報한바와가티 總督府農産課의 朝鮮生活調査計畫은 今年度부터 一部施行을 보고 잇는바 問題의 土壤分析機關擴充도 明年度에는 實現할計畫으로 爲先은 水原農事試驗場의 化學部 擴充에 對한 豫算도 農林局에서 立案中이라하며 忠北、平北二道를 除外한 各道農事試驗場 化學室의 擴充及利用에 對하야서는 協議中이라한다 그런데 明年度는 現在道農事試驗場에 化學室이 업는 忠北、平北二道에 化學室을 設할計畫으로 農産課에서 考査中인바 一個所에 對한 新設費는 二千二百圓式을 明年度豫算에 計上할 豫定으로 이것이 通過되면 全朝鮮各道에 土壤分析機關의 整備를 보리라고한다

北朝鮮과 東北滿洲 【16】

去益加重하는 經濟的重要性

北鮮의經濟圈 北部北朝鮮

北部北朝鮮은 北朝鮮의 가장 重要한 地域으로 清津以北의 北朝鮮鐵道沿線一帶의 圈內에 編入되는데 該地方은 後述과 如히 運輸關係로부터 現在清津을 起點으로하야 羅南、會寧、上三峰、龍井等의 北朝鮮鐵道西部線沿線地方을 一丸으로하는 西部의 地域과 羅津을 起點으로하는 雄基、慶源、穩城、訓戎、南陽、圖們、延吉等 北朝鮮鐵道東部線沿線地方과 두 小經濟圈에 區分되는바 이두 系統은 間島貿易에 重大한 關係를 가지고잇다 清津港及雄基港의 貿易狀態를 보면 如左하다

清津港貿易額(五年對照)

	輸移出	輸移入	計
明治四十一年	二〇、四六八圓	四二六、二八九圓	四四六、七五七圓
大正六年	一、二二六、二五九	二、七〇〇、〇六三	三、九二六、三二二
同十一年	四、〇三六、一六六	七、〇〇四、七二三	一一、〇四〇、八八九
昭和元年	七、三三四、五三五	一二、〇三七、一一二	一九、三七一、六四七
同五年	八、二六八、八三九	九、九六八、一九四	一八、二三七、〇三三
同八年	九、七六九、八二九	一五、八二六、三七一	二五、五九六、二〇〇
同九年自一月至十月	一〇、三五三、〇八四	一九、七〇五、三九〇	三〇、〇五八、四七四

清津港通過貿易額表(五年對照)

	間島仕出	間島仕向	計
大正六年	九五、八四五	一、四六三、五〇六	一、五五九、三五一
同十一年	一、〇八三、八六二	三、四五七、二二三	四、五四一、〇八五
昭和元年	四、七七〇、七二三	四、一九〇、八三四	八、九六一、五五七
同五年	二、六六八、三八四	一、一一四、〇二三	三、七八二、四〇七
同八年	一、九〇四、九二三	二、〇〇六、七二〇	三、九一一、六四三

雄基港開港以來貿易額(五年對照)

	輸移出	輸移入	計
大正十一年	一、三三三、一七六	八三二、二三四	二、一六五、四一〇
昭和元年	四、一九〇、二六五	一、〇二六、八八三	五、二一七、一四八
同五年	一、七五一、七六七	二、四四五、七〇〇	四、一九七、四六七
同八年	三、八八四、六四八	八、三四七、八七〇	一二、二三二、五一八
同九年自一月至十月	六、九九一、八八一	一〇、四五五、九九八	一七、四四七、八七九

雄基港運年通過貿易(五年對照)

	輸移出	輸移入	計
昭和元年	九三、〇〇一	一、七九六、〇三二	一、八八九、〇三三
同五年	二〇九、六二八	八二三、〇一六	一、〇三二、六四四
同八年	五七二、一一一	一、八〇〇、五六二	二、三七二、六七三

그리고 이北朝鮮北部의 東西兩地方을 縱橫하는 北朝鮮鐵道는 日本海航路網의 發展과 相俟하야 南朝鮮의 發展 延하야서는 日滿經濟連絡의 要衝가 되어잇슨것인데 本線은 昭和八年十月朝鮮鐵道局線의 一部를 滿鐵에서 委任經營하게되어 經營이 日淺하나 그移管後의 旅客並貨物輸送情況은 北鮮鐵道管理局의 發表에 依하면 昭和八年十月부터 九年九月에 이르기까지의 輸送數量은 前年과對比하야 旅客에잇서서 平均五六% 貨物에잇서서 入八%의 增加率을 示하고잇다 이에依하야서도 昭和八、九年을 境界로 北朝鮮이 發展의 第一段階에 드러가것을 示하는것인데 今昨年四月부터 十月까지의 北朝鮮鐵道의 貨物輸送狀況을 보면 自線內의 荷動은 主로大豆、木材、石炭、小麥粉、세멘트類가 大部分을 占하고 發送四十二萬六千十五噸 到着四十一萬六千二百四十五噸이다 다음에 朝鮮鐵道北滿洲國鐵道와의 連帶輸送狀況에 對하야서는 그 發送貨物은 十五萬六百噸으로 그中主로 朝鮮線에 石炭、木材、杭木 세멘트類、京圖線、朝開線方面에 小麥粉、세멘트、拉濱線에 軌條、軍用品、小麥粉、麥酒、세멘트類 圖寧線方面에 石炭、軌條等을 搬出하고 到着貨物은 總計十四萬四千八百五十一噸으로 그中主要貨物은 朝滿線으로부터의 石炭、세멘트類 京圖線으로부터 大豆、木材、煉瓦類 朝開線으로부터 大豆、木材、拉濱線으로부터 大豆、大豆粕等을 搬出하고잇다

羅津港에 對하야

羅津港은 昭和六年九月 滿洲事變의 勃發과 同時에 對滿關係上 그重要性이 加重되바 北朝鮮과 將來日滿連絡의 一幹線이될 北朝鮮鐵道의 終端港으로 決定되고以來 逐次築港計畫이 發表되어 衆目을 끌고잇다 當港은 北緯四十二度九分、東經百三十度六分에 位하야 距離가 東西四浬餘、南北六浬、約二千五百萬坪의 碇泊可能海面을 有하고 또大草島及小草島의 二島가 天然의 防波堤를 形成하고 船舶의 出入에 對하야 二水道를 成하야 天然의 良港이다 이제 築港計畫을 보면

第一期、第一期工事는 昭和八年부터 同十二年까지 五個年에 二千五百五十萬圓을 要하는 西北港의 埋築과 三個의 埠頭並陸上에 荷揚場、倉庫、道路及野積場을 施設한다。此繫船能力 八千噸級四隻、七千噸級八隻、四千噸級四隻 荷役能力一個年 三百萬噸이다

第二期、第二期工事는 昭和十三年부터 同十七年에 亘하야 工事費二千餘萬圓으로서 前記第一期工事와 거이 同樣의 規模의것을 施設擴張한다

第三期、第三期工事는 昭和十八年부터 同二十二年에 亘하야 二千餘萬圓으로서 거이 前記同樣의 現施設을 擴張하고 完成의 時는 繫船能力八千噸級十二隻、荷役一個年九百萬噸으로될豫定이다 아직은 不開港인것이나 商圈이 建設途上에잇는 地元에 限하얏기 때문에 그經濟的現狀은 볼만한것이업다 그러나 雄羅線隧道는 이미開通되고 鐵道의 開通도 今年中에될豫定이며 이와同時에 第一埠頭도 完成될것으로 이와前後하야 開港될터이오 玆에 드듸어 北朝鮮鐵道終端港으로서의 活路가 開始되어 北滿並東滿의 物資는 本港에 依하야 吞吐하게될것이다

그리고 滿鐵의 調査에 依하면 昭和十二年度의 滿洲輸出物資의 全數量은 約一、三五〇萬噸으로 推算되어 輸入約五〇〇萬噸이 在滿各港에 依하야 吞吐되리라고 豫想되고잇다 그리고 此等의 物資의 移動系統에 對하야서는 單只地理的關係에 依하야서만 推定하기는 困難함으로 玆에는 單只同年度頃의 各港灣의 吞吐能力을 參考하면

大連港	一、一〇〇萬瓩
旅順港	五〇〇萬瓩
葫蘆島	二〇〇萬瓩
羅津港	三〇〇萬瓩
營口港	二〇〇萬瓩
安東港	五〇〇萬瓩
浦鹽港	三〇〇萬瓩
清津雄基港	一〇〇萬瓩

以上은 勿論推算能力으로 實際取扱貨物은 大體右能力의 約八〇%일것이라한다

그리고 그中浦鹽港은 北滿鐵路의 滿洲國接收가 完成하면 그關係의 貨物은 殆半羅津에 集散될것도 豫想할수잇서 滿洲國의 交通政策如何에도 依存하는바크다할지라도 將來의 羅津港의 九百萬噸은 滿洲國今後의 發展과 北朝鮮地元의 發展에 依하야 充分히 充足될것이며 日本海航路網의 完成과 相俟하야 大羅津의 將來는 決定的이라할것이다

二、中部北朝鮮

城津港을 中心으로한 經濟地域을 大觀하면 咸鏡北道南部及咸鏡南道의 北朝鮮開拓區域並滿洲國中部地方을 一丸으로한 中部北朝鮮의 一小經濟圈이라함은 即中部北朝鮮의 生命이되다

城津港開港當時의 交通運輸는 大槪海運의 便에 依하는外 업섯스나 昭和三年咸鏡線이 全通되고、昭和六年惠山線의 起工이 잇서 現在七分가량의 完成을 보고 또同線에서 分岐하는 拓殖東部線의 森林鐵道白茂線도 昭和七年起工되어 現在三分가량을 利用하고잇는바 此等交通運輸機關의 整備에 伴하야 資源의 開發도 逐次實現하는 一方 滿洲國의 充實에 따라 終點惠山嶺으로부터 滿洲國計劃路線長白縣(長白、通化內)及長白으로부터 撫松을 經하야 海龍에 通하는 自動車路線에 依하야 中部滿洲國과 經濟的交涉이 잇게될터이며 此一帶의 開發은 益益促進될터이다

三、南部北朝鮮

北朝鮮南部地方은 即北斗日面을除한(廣大한 마네사이트 埋藏地域의 北斗日面은 地勢의 關係로 現在에는 城津의 商圈內에잇다) 咸鏡南道의 一帶로 現在奧地로 聯絡하는 交通機關으로서는 北靑、惠山鎭間의 自動車交通과 咸興을 起點으로하는 朝鮮鐵道咸南線에 依하는것이 主요 其他管內道路(一等道路三線百十四里 二等道路十五線二百八十八里 三等道路三十二線三百四十八里 合計五十線七百四十二里)에 依하야 各地의 産業開發이 되고잇는바 前述과가티 咸南線의 敷設計畫은 本道長津江을 經하야 平北厚昌、古邑에 達하고 또는 長津으로부터 나노여 平北滿浦鎭에 通하는것으로 此延長二百十七哩三、將來咸興、奉天線의 前提로 本鐵道完成은 平安北道奧地에 包藏된 無限한 寶庫를 가고 一部는 本線에 依하야 開發될것이며 또咸興奉天線實現時는 이로 한北朝鮮中部滿洲와를 聯絡하야 朝鮮滿洲의 交通에 크게貢獻하게 될것이다 (完)

日本重要鑛山鑛産額 (商工省鑛山局調査)

年月	金(瓩)	銀(瓩)	銅(瓩)	石炭(千瓩)	石油(百立)	硫黃(瓩)	鉛(瓩)	亞鉛(瓩)	錫(瓩)	硫化鐵鑛(瓩)
九年二月	一、三六八	一六、五四六	五三、三六六、三四二	二、七四三	一五七、六六八	八、二五五	五五六、九六七	二、一四七、三三三	七六、〇三三	八〇四、六六〇
三	一、三三四	一七、九七六	五八、八八二、八六七	三、一六一	一七三、三三五	九、七七七	三三八、七〇七	一、四四一、三九九	七四、八六一	九〇五、三八九
四	一、三一二	一九、〇〇八	六〇、四〇三、四三四	二、八二四	一七七、一八三	一〇、〇七二	二七七、八九九	二、四八四、〇五六	八四、〇八三	八〇一、一〇四
五	一、三一七	一七、〇三〇	五八、一一五、三八九	二、八七三	一八七、九三五	一〇、三〇八	三五〇、三二四	二、六五七、〇五九	八四、二八二	八九九、一一九
六	一、一七四	一七、三〇四	五六、六七六、〇五一	二、六〇八	一九〇、八〇六	一〇、二一七	三五〇、七〇〇	二、三三三、九七五	七八、六九二	八八五、四五六
七	一、三四四	一六、五三三	五八、〇〇八、五三三	二、五三四	二〇六、四八八	一一、〇九四	三七一、〇五七	二、四四七、一五一	八〇、八二〇	八八二、四五六
八	一、三五五	一八、〇八七	五八、〇六二、〇四七	二、三六二	二一七、九一二	一一、一八一	三七二、三七八	二、五五七、〇八〇	九九、四九〇	八九六、四二六
九	一、三二八	一八、九二一	五八、六九七、五一六	二、四八九	二〇一、一〇〇	一一、〇〇九	三七九、三〇二	二、三八一、三〇六	一三〇、二二三	八八八、六〇九
十	一、二七七	一八、〇四七	六〇、〇〇七、三二一	二、七九七	二二三、八四六	一三、〇六四	三六五、一七八	二、三五一、四四六	一三七、三四四	八八八、七七二
十一	一、三三四	一八、三四五	五九、三三九、〇四七	二、八二七	二〇六、三四六	一二、六〇六	三九三、七二〇	二、六〇三、一六〇	一三〇、三六一	九八〇、四〇三
十二	一、三七五	一九、三三九	五九、八九九、八九八	二、九〇八	二〇二、七一六	一三、一七七	三六四、八八五	二、五八〇、五五五	一三五、七五二	九六〇、四九九
十年一月	一、三四〇	一八、七〇二	五九、四三〇、〇九六	二、七八五	二七五、一二四	一一、五〇三	四九二、一八八	一、五六八、〇三四	一二八、六六四	一、〇五六、三六六
二	一、三三二	一八、二一五	五五、四八〇、六九八	二、七二六	二四〇、五八五	一〇、六八二	五四四、三三九	二、三二六、七三五	一二〇、〇二一	八八五、〇〇五
今年累計	二、五三三	三六、八一七	一〇九、九〇〇、七九四	五、五一六	五一五、六九九	二三、一八五	一、〇三七、五四七	四、八〇六、七四七	二五八、六四五	一、六八八、一三三
前年同期	二、三三七	三三、五三六	一〇〇、五四九、五二六	五、三九七	三三六、六〇七	一七、六〇六	一、一〇一、六七七	四、五七七、四四九	一四四、五二八	一、四七九、一四三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三五六〇	京畿抱川郡永中面	六月十一日	大阪市東區北濱 住友合資會社
八二七四	同	同	同
八三三一	同永中面、一東面	同	同
一二一四	江原通川郡碧養面	五月二十二日	東京市淀野川區田端町 金井宇良吉
一一四三	咸南安邊郡鶴城面 安道面江原通川郡欽谷面	同	元山府上洞 金尙元
一〇〇四〇	忠北永同郡梅谷面	同二十三日	金泉郡鳳山面代表者曹秉旋 同開寧面 馬壕植
一〇五二二	慶北金泉郡大德面 慶南居昌郡熊陽面	同	福岡縣八幡市代表者 有瀧辰次 同 井上常市
八七七五	江原金化郡岐梧面	同廿四日	京城府永樂町 中川湊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七七三	平北熙川郡新豐面	五月二十八日	代表者를車炳壽으로改定함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八六二	忠南唐津郡石門面	五月二十一日	合資會社中島商會任意脫退
一八六四	咸南安邊郡鶴城面 安道面	同二十一日	李昌柱任意脫退함
八三九〇	平北朔州郡外南面	同廿三日	朴永益任意脫退함
一〇七七三	同熙川郡新豐面	同廿八日	金練植任意脫退함